

결혼이주여성의 아동학대 발생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양육스트레스, 문화적응스트레스, 사회적지지의 구조적 관계- * **

박명숙⁺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재경⁺⁺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요 약]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아동학대 발생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양육스트레스, 문화적응스트레스, 사회적지지의 구조적관계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가설모형을 설정한 후, 전국을 표본으로 결혼이주여성 195명에 대한 설문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아동학대에 직접효과를 갖는 변수는 양육스트레스였고,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간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사회적지지는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스트레스에 대해 문화적응스트레스를 매개로 간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지지는 아동학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들을 상쇄시키는 보호요인으로 기능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제안하였다.

주제어 : 결혼이주여성, 아동학대, 양육스트레스, 문화적응스트레스, 사회적지지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2S1A5A2A01016656)

** 이 논문은 2014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음

+ 주저자

++ 교신저자

1. 서론

한국사회에서 아동학대 신고건수와 피해아동 사례는 법률제정 및 사회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에서의 아동학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2). 다문화가정의 아동학대는 새로운 문화의 수용 및 적응과정과 결부되어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 전체의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2011년 전국아동학대 현황자료에 의하면(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2), 다문화가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는 전체 신고사례 5,657건 중 약 4.3%에 해당하는 243건이었고, 다문화가정의 아동학대는 2008년 통계조사 이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아동기 학대경험은 학습성취 저하, 심리정서 및 성과 관련된 문제, 알코올 등의 약물중독의 경험, 그리고 충동조절에 어려움을 겪어 심한 공격성 및 자살시도, 사회성 문제 및 비행과 범죄에 빠질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공계순 외, 2005; 김경호, 2006; 나은숙·정익중, 2007; Vranceanu et al., 2007; Wareham and Dembo, 2007; Annerback et al., 2012; Kwok et al., 2013).

특히, 다문화가정의 아동학대는 부모에 의한 발생률이 91.4%로 매우 높고, 학대원인으로는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이 전체의 31.8%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2: 39). 첫 아이의 출산과 양육경험의 부재, 결혼이주여성으로서 문화적응에 대한 부담은 결혼이주여성들의 스트레스 요인이 되며, 스트레스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및 대응방식의 부재는 아동학대 발생위험성을 증가시키고 있다(박명숙, 2008). 일반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가정은 한국남성과 외국여성간의 결혼으로 이루어진다(김오남, 2006a). 결혼을 위해 이주한 여성들은 언어, 가치관, 가족관계,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 문화적 차이로 인해 심각한 사회문화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고(최현미 외, 2008), 선행연구들은 다문화가정 및 이민가정이 경험하는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아동학대 발생위험성이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Park, 2001; Fontes, 2005; Cohen et al., 2007). 결혼이주여성들은 1차적으로 부모가 됨으로써 겪게 되는 양육스트레스와 함께 한국생활의 적응 및 양육과정에서의 문화적 차이를 경험함으로써 혼란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이는 아동학대 발생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아동학대 발생위험성 및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정의 아동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있다. 지금까지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아동의 사회문화적 적응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신선희·우수경, 2013; 이영분·김나예, 2013; 임안나, 2005; 전경숙·송민경, 2011)과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을 다룬 연구들(김지현 외, 2009; 이선미·이경아, 2010; 임지향·이홍표, 2010)이 대부분이며, 다문화가정의 아동학대와 관련된 학문적 연구와 실천적 관심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내 아동학대 예방의 중요성에 근거하여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분석하자 한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의 주된 영향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변수와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관계를 탐색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다문화가정의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정책적·실천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아동학대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스트레스를 주요 위험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김동춘, 1997; Belsky, 1984). 특히 스트레스가 많은 생활사건들은 스트레스에 대한 인내력의 약화를 가져와 학대와 방임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나는데(Wolfe, 1987), 양육이라는 생활사건에서 부모가 받는 양육스트레스는 대표적인 아동학대 유발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1; 이재연·한지숙, 2003; 이현기, 2005; Rodriguez and Green, 1997; Crouch and Behl, 2001; Haskett et al., 2006). 이와 함께 결혼을 위해 이주한 여성들은 문화적응에 따른 스트레스도 함께 경험하고 있는데(양옥경 외, 2007; 최명선·곽민정, 2008), 문화는 기본적으로 아동의 양육에서 중요한 자원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이다(Xu et al., 2000; Affifi, 2007; Lee, 2009). 따라서 문화적응에 대한 스트레스는 한국사회의 적응과 양육의 책임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에게 아동학대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아동학대 위험요인이 보호요인을 통해 상쇄 또는 감소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Jonzon and Lindblad, 2006; Putnam-Hornstein et al., 2013). 사회적지지는 아동학대 발생과 관련한 대표적인 보호요인으로 아동의 양육환경을 보호환경으로 바꾸기 위한 중요한 사회경제적 자원이다. 부모에게 제공되는 사회적지지는 양육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탄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며 아동보호에 기여하는 요인이다(곽금주 외, 2007; 박명숙, 2008; 여진주, 2010; Heller et al., 1999; Budd et al., 2006; Lee, 2009). 즉, 사회적지지는 부모의 양육과정에서 아동학대의 예방과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보호요인으로 다른 위험요인들의 영향을 상쇄시키는 기능을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학대는 다양한 요인들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즉 개별요인이 갖는 영향력의 크기뿐만 아니라 요인들의 관계구조에 대한 이해는 아동학대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양육행동은 다양한 조건들에 의해 결정되고 있어 아동에 대한 학대 역시 다양한 요인들의 상호관계에 따라 구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보건복지부, 2011). 따라서 아동학대 요인에 대한 단선론적 접근은 부모의 양육스타일과 훈육방법을 이해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Xu et al., 2000).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내에서 아동의 주양육자인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선행연구들이 제시하고 있는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인 양육스트레스, 문화적응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요인의 구조적 관계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다양한 관계를 고려함으로써 양육과 문화적응이라는 이중부담에 처해 있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동시에 문화적 관점에서 아동학대 문제를 재조명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적 의의를 가질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1) 결혼이주여성의 스트레스와 아동학대 발생 위험성

한국의 다문화가정은 1990년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현상 속에서 결혼이 어려운 농촌총각을 중심으로 아시아 여성과 가정을 이루면서 형성되었다(김지현 외, 2009; 유은주, 2011). 한국으로 결혼이주한 여성들의 결혼동기는 경제적 이유가 69%로 모국에서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 또는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결혼을 선택한 것이다(보건복지부, 2005). 한국남성의 경제력과 외국 여성의 성적교환으로 이루어지는 국제결혼은 여성이 가정내에서 열악한 위치에 놓이는 상황을 초래하였고(김오남, 2006a),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이 서로의 문화에 적응하기보다는 외국여성이 한국문화에 적응하는 방식으로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즉, 이주여성들은 문화적 충격과 함께 좌절과 희망속에서 한국사회에 적응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김지현 외, 2009).

일반적으로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여성은 국적, 종교, 피부색, 경제력 등으로 인해 차별과 불안정 상태에 있고, 상이한 문화로 인한 일상생활에서의 적응상의 문제는 긴장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한다(한건수, 2006). 특히,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으로의 이주에 대한 준비가 없이 오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모국에서의 익숙해 있던 것들과는 다른 상황의 사람, 음식, 풍습 등 새로운 한국문화의 대면을 통해 문화적 충격을 경험한다(양옥경 외, 2007). 문화적 충격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서로 다른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하고, 스트레스는 삶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김오남, 2006b). 김영주 외(2008)에 따르면 여성결혼이민자의 62.6%는 보통이상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고, 홍기혜(2000)는 중국 조선족 여성의 결혼생활에 대한 연구에서 남편의 가부장적 태도와 시부모의 며느리에 대한 통제로 인해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은 한국문화와 가족, 지역사회에 대한 적응 뿐 아니라 자녀양육에 대한 부분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경험한다. 양옥경 외(2007)는 한국의 결혼이주여성들이 자녀양육과 교육의 어려움 등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결혼이주여성의 양육경험이 부모가 되는 경험 외에 문화의 차이로 인한 양육갈등에서 오는 어려움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고 제시한다. 이에 대해 김지현 외(2009)는 양육과정에서의 어려움이 문화충격의 영향과 더불어 양육상의 문제를 낳고, 결국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즉, 결혼이주여성은 이민자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 문화적응과 자녀양육문제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고, 자녀양육과정에서 결혼이주여성은 양육스트레스로 인한 아동학대 발생위험성이 비결혼이주여성 어머니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영분과 김나예(2013)는 다문화가정의 경우 부부간의 불화로 인한 폭력, 사회경제적 취약, 양육에 대한 정보부족, 이중문화와 이중언어로 인한 위험요인, 생활습관의 차이 등으로 아동학대의 위험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이민자 가정에 대한 Park(2001: 945-958)의 연구에서도 확인된 바 있으며, 다문

화가정의 스트레스와 아동학대 발생위험성간의 높은 상관관계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양육스트레스가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가능하게 한다.

2)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는 가족생활의 발달적 맥락에서 이해되는데, 가족체계가 직면하는 발달과정 속에서 예상되는 스트레스를 의미한다(고성혜, 1994). 가족의 발달은 자녀의 출산, 학교입학, 돌봄, 환경적응 등 가족구조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양육스트레스는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일상적인 영아기 자녀의 행동을 중심으로 이해된다(김기현·강희경, 1997; Crnic and Greenberg, 1990). 최나야 외(2009)는 양육스트레스와 관련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생활에 대한 적응이 미흡하고, 가족이나 이웃의 도움이 부족한 상태에서 첫 출산을 경험하고 영아를 보살피느라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 자신 뿐 아니라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쳐 자녀의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김지현 외, 2009). 어머니가 느끼는 양육스트레스는 그 자체가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과도하게 나타나거나 적절히 해소되지 못할 경우 가족 구성원 전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Silver et al., 2006).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행동을 평가하는 주요한 지표가 되며, 어머니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양육경험 여부에 따라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김지현 외, 2009).

따라서 양육스트레스는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한 통합적 모델에서 중요한 변수로 제시되고 있으며(Milner, 1993; Haskett et al., 2006), 아동양육과정에서 아동학대 발생을 유발하는 위험요인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Fontes, 2005). Crouch와 Behl(2001)은 학대위험성이 높은 부모의 경우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Guterman(2009) 역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신체적 학대와 방임의 위험성에 모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국내에서는 김미예와 박동영(2009)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언어적 학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확인한 바 있다.

(2) 문화적응스트레스

문화적응은 일정한 문화를 지닌 집단 속의 개인이 이주하게 됨으로써 새롭게 속하게 되는 사회의 문화, 즉 사회적 구조와 제도, 정치, 가치체계에 따라 다양하게 형성된다(양옥경 외, 2007). 문화적응은 모국의 문화적 가치, 특성유지 여부 및 주류사회와의 관계유지 여부에 따라 통합, 분리, 동화, 주변화로 구분되는데(Berry, 1997), 결혼이주여성은 주로 새로운 문화를 거부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문화의 형태, 언어, 관습 및 생활방식에 대한 적응으로서 문화수용을 한다(김오남, 2006a; Gordon, 1964).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이민사회의 새로운 문화와 생활방식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이민자들은 상당한 스트레스 상황을 경험하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김오남,

2006a; 박명숙, 2008; Marezki, 1977; Moon and DeWeaver, 2005).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은 결혼생활 부적응과 함께 각종 정보나 취업 등으로부터의 소외, 자녀양육 환경의 취약성으로 인한 한계, 가족해체 등을 경험한다(여중철, 2010: 371).

결혼이주여성들에게 문화적응의 어려움은 양육스트레스와 함께 아동학대 발생을 유발하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Xu 외(2000)에 의하면 문화는 부모가 양육을 위해 이용하는 자원이며, 양육의 한 형태로 평가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문화가 아동을 기르는 것과 관련한 태도와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부모의 양육행동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Xu et al., 2000; Affi, 2007). 그러나, 국내 결혼이주여성들은 양육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기 전에 자녀양육을 맡게 됨으로써 갈등과 불안이 매우 크고(박영아, 2009), 자신의 자녀가 다른 가정의 자녀들보다 지나치게 소극적이거나 문제행동을 나타내는 것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한상영, 2011). 더욱이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양육태도의 혼란은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는데(이지영, 2012; 신선희·우수경, 2013), 일반적으로 부모의 스트레스가 신체학대의 유발과 처벌적 훈육행동 및 자녀의 공격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결과를 고려할 때(이재연·한지숙, 2003), 결혼이주여성들은 자녀를 보살피는 동안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할 경우 학대의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여진주, 2008). 더불어 한국사회에서 스트레스에 대한 구조적 여과장치가 거의 없는 결혼이주 여성은 양육과 문화적응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이중으로 받기 때문에 아동학대 발생위험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자녀의 행동특성과 가족갈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들(이영실 외, 2012; 신선희·우수경, 2013)을 고려할 때,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아동학대와의 관련성을 예측해볼 수 있다.

(3) 사회적지지

일반적으로 사회적 고립은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주요 위험요인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이에 사회적 지지는 아동학대에 대한 보호요인으로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박명숙, 2008). 사회적지지에 대해 Thompson(1995: 170)은 안전과 지지적 사회관계가 문제상황에서 적절한 기능을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친밀한 사람들이 제공하는 언어적, 비언어적 정보나 충고, 가시적인 유형의 도움이나 행동이 수혜자에게 정서적, 행동적으로 바람직한 효과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지지를 개인의 적응과 문제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자원으로 이해할 수 있고(박명숙, 2008), 실제 자녀양육철학, 양육에 대한 지지, 의사결정, 자녀양육부담, 가사노동분담 등이 사회적지지를 받을 때 결혼만족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김희경, 2010; Proulx et al., 2004). 더욱이 사회적지지는 부모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생활사건에 대한 영향력을 감소 및 완화시킴으로써(Morisset, 1993; Smokowski et al., 1999), 사회적지지는 스트레스 상황을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기능하고 있음을 입증한다고 할 수 있겠다(Fontes, 2005).

사회적지지와 아동학대와의 관계는 많은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다. Heller 외(1999)는 사회적지지가 부정적인 초기경험의 영향에 대한 보호요인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음을 밝혔고, Kotch 외(1997)는 아동학대 위험에 대한 가족의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사회적지지가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

하였다. 국내 아동학대 실태조사(보건복지부, 2011)에 따르면, 학대경험이 있는 아동의 주양육자가 그렇지 않은 양육자에 비해 사회적지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서 아동학대의 보호요인으로 사회적지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양육스트레스와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결혼이주여성에게 사회적지지는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처하는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에게 사회적지지는 단순히 스트레스 수준의 완화뿐 만이 아니라, 문화적응과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자원이 되기도 한다. 김오남(2006a)의 연구에 의하면, 결혼이주여성에게 있어서 모국인 친구는 대화가 통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같은 문화를 공유함으로써 중요한 자원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결국, 결혼이주여성에게 사회적지지는 한국에서의 문화적응을 돕고, 양육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됨으로써, 스트레스 상황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보호효과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3) 사회적지지, 문화적응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와 아동학대의 관계

지금까지 고찰한 각 요인들의 선행연구를 통해 예측할 수 있는 구조적 가설모형은 기본적으로 각 요인들이 아동학대에 직접효과를 갖는 것과 함께 이들 요인들이 아동학대에 있어 어떠한 구조적 인과관계를 갖는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과관계를 구성함에 있어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과정모델과 사회적지지의 개념을 활용하고자 한다. 스트레스과정모델은 스트레스 경험에 대한 일원적 설명이 아닌 스트레스를 사회 속에서 개인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상황의 맥락으로 살펴보는 것이다(진혜민, 2013). 이 모델을 제시한 Pearlin 외(1981)는 스트레스 배경과 환경, 스트레스요인(stressor), 스트레스 결과, 매개체(moderator)의 주요 요소간의 상호작용으로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스트레스가 개인의 정신건강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즉,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이라는 낯선 환경에 처해짐으로써 문화적응 및 양육과 같은 스트레스 요인 및 매개체를 갖게 되고, 이러한 스트레스요인이 아동학대라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러 선행연구들은 아동학대에 직접적인 원인 변수로 양육스트레스를 제시하고 있으며(이재연·한지숙, 2003; 이현기, 2005; 보건복지부, 2011; Guterman, 2009; Pereira et al., 2012), 결혼이주여성만이 경험하는 문화적응스트레스 상황은 아동학대를 촉발하는 매개효인이 될 수 있다. 최명선과 광민정(2008)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결혼이주여성의 양육스트레스는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영향을 받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이 문화적응과정을 시작하면서 자녀양육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양육스트레스에 선행하는 사건인 것이다(이지영, 2012; Affifi, 2007; Lee, 2009). 이러한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는 아동학대의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다. 사회적지지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관련하여, 김미령(2005)은 사회적지지의 효과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 영향 모두 가지고 있다고 제시하는데, 대부분의 많은 연구들에서는 사회적지지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긍정적인 영향은 직접효과 또는 완충효과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Buunk and Hoorens, 1992), 직접효과는 삶의 스트레스와 상관없이 개인의 복지를 강화하는 것이고, 완충효과는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이를 완화시켜 개인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Cohen and Syme, 1985). 사회적지지는 사회적 관계망이라는 자원을 통해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완충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다른 의미로는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 즉 개인의 복지를 강화하는 직접적 효과로 기능할 수 있다. 조한숙(2010)은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가족 또는 친밀했던 인간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사회적지지 상실로 보았고, 이는 사회적지지의 상실이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불안을 초래함으로써 스트레스정도를 결정한다고 본 것이다. 즉, 스트레스에 관계없이 사회적지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사회적지지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보다 높은 정신건강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김미령, 2005). 이러한 관계는 양육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Budd 외(2006)의 연구를 살펴보면, 미성년이면서 부모로써 이중적 삶을 살아가는 청소년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지지가 양육스트레스를 예측하는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사회적지지로서 가족이나 이웃의 도움은 출산과 양육에 중요한 자원이 되고, 이에 결혼이주여성이 겪는 어려움은 물리적 도움을 제공할 가족 및 육아정보 제공과 스트레스 해소 대상의 부재, 지역사회내 소통의 어려움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최나야 외, 2009).

스트레스와 아동학대의 관련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아동학대 발생에 다양한 스트레스 원인이 존재하지만, 스트레스 자체가 학대를 유발하는 필요충분조건이기보다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하나의 반응으로 학대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김동춘, 1997; 박명숙, 2008). 이는 스트레스에 대해 적절하거나 충분한 대응 및 대안이 없을 경우에 폭력의 형태로 표출될 수 있다는 것이며, 아동학대 유발요인으로써 양육스트레스와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사회적지지의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지지는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스트레스와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결정하는 예측요인으로서 구조적 관계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가설모형을 바탕으로 아동학대 발생 위험성과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 보호요인의 구조적 관계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3. 연구방법

1) 연구가설과 연구모형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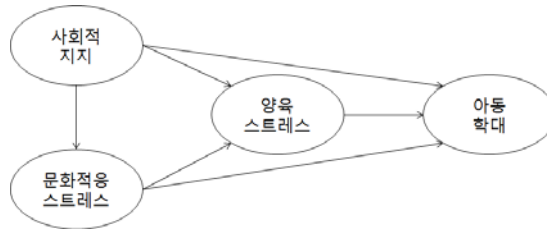
가설 1 : 사회적지지, 문화적응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는 아동학대에 직접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 사회적지지는 문화적응스트레스를 매개로 아동학대에 간접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 3 : 사회적지지는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아동학대에 간접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 4 :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아동학대에 간접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 5 : 사회적지지는 문화적응스트레스를 매개로 양육스트레스에 간접효과를 가질 것이다.



〈그림1〉 연구모형

2) 연구대상 및 표집방법

본 연구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조사를 위해 전국을 표본으로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등을 조사지역으로 선정하였고, 각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결혼이주여성들이 이용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비확률표집하였다. 편의표집법을 통해 설문조사 참여가 가능하고 이에 동의한 결혼이주여성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5개 지역의 총 11개 기관이 설문에 참여하였고, 설문은 기존 결혼이주여성 출신분포를 고려하여 한국어 설문지를 포함해 중국어와 베트남어 등 2개 언어로 추가 번역하여 진행하였다¹⁾. 한국어 및 중국어, 베트남어 사용이 불가능한 결혼이주여성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역사들의 도움을 받아 설문을 진행하였다. 통역사들에게 설문지 진행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한 후 설문을 진행하여 보다 효율적인 설문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사용된 설문지는 예비조사 및 포커스 그룹을 통해 전반적인 수정보완 및 검증이 이루어졌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은 18세 미만 자녀의 주양육자들로 구성되었으며, 조사기간은 2012년 11월부터 약 2개월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총 204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한 195부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1〉 설문지역(N=195)

지역	강원도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	전라도	총계
빈도(%)	99 (50.7)	39 (20.0)	8 (4.1)	40 (20.6)	9 (4.6)	195

3)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 및 측정

(1) 사회적지지

본 연구에서 사회적지지를 알아보기 위해 McCubbin 외(1996:179-290)에 의해 개발된 Social

1) 지역별 설문대상자 선정은 연구자의 연구설계에 의해 지역별로 30명씩 유의표집하여 실시하였다. 하지만 설문대상자의 자발적 참여의사를 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는 현장상황에 따라 응답한 결과만을 분석에 활용하여 지역별로 대상자수의 차이가 있다.

Support Index(SSI)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박명숙과 강희경(2009)이 번안하여 사용한 바 있고, 총 17개 문항(5점 척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의 구성은 친구지지, 가족지지, 지역지지 등 3개 요인으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가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문항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74로 적합하였다. 또한 자료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분석결과 고유값이 1.0 이상, 요인부하량이 0.40 이상으로 본래의 3개 요인에 1개 요인(1문항)이 더 추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번안된 척도와 구성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내용타당도를 재검토한 후 번안된 척도대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2) 문화적응스트레스

문화적응스트레스는 Sandhu와 Asrabadi(1994)가 개발한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를 사용하였다. 한국어 번안은 이승중(1996)이 하였는데, 원척도는 36문항으로 지각된 차별감, 향수병, 지각된 적대감, 두려움, 소속감, 문화충격, 사회적 고립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외국유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측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김오남(2006a; 2006b)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16문항으로 수정하여 측정하였고,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여러 연구들에서 이미 사용한바 있다(이지영, 2012; 조한숙, 2010; 최명선·곽민정, 2008).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16개의 문항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²⁾을 실시하였고, 이 중 원척도에 해당하는 차별감, 향수, 부적응 등 세 개의 하위요인이 확인되어 이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세 개 요인에 의해 설명된 총분산은 54.68%였고, 설문내용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91이었다.

(3)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는 Abidin(1990)의 척도를 김기현과 강희경(1997)이 한국어로 번안하고 축소하여 사용한 양육스트레스척도를 사용하였다. 원척도는 총 32문항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일상적 스트레스 12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0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90이었다.

(4) 아동학대 위험성

아동학대는 장화정(1998)의 아동학대평가 척도를 재구성하여 수정, 보완한 아동학대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아동학대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평가하는 척도로 사용된다. 아동학대 측정도구의 하위요인은 신체학대(7문항), 정서학대(11문항), 방임(4문항)으로 총 22문항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이고, '전혀 그렇지 않다'(0점)를 제외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학대위험성 정도가 심한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94이었다.

2) 탐색적요인분석은 측정변수의 구성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주축분해법(principle axis factoring)을 사용하였다. 요인적재치의 단순화를 위해 비직각회전방식인 직접오블리민을 채택하였다.

(5)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자녀수, 한구거주기간(년), 가구소득으로 구성하였고, 세 변수 모두 비율변수로 투입하였다. 세 변수는 아동학대 유발과 관련이 있는데, 국내연구에서 아동의 형제수, 가족크기, 경제적 어려움 및 사회경제적 지위 등이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봉주·김세원, 2005; 이재연·한지숙, 2003; 이현기, 2005).

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연구모형의 검증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와 신뢰도,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모형에 대한 측정변수들 간의 관계와 인과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AMOS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분석하였다.³⁾ 셋째, 측정변수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Sobel test⁴⁾를 적용하여, 효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측정하였다.

4.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⁵⁾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먼저 연령은 30대가 49.7%로 가장 많았고, 20대 32.5%, 40대 이상 17.8%이었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50%, 대학교 졸업이상 28.7%, 중학교 졸업 이하 21.3% 순이었으며, 77.4%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배우자(남편)의 연령은 40-44세가 37.9%로 가장 많았고, 45-49세 27.4%, 50대 이상 12.1%로 40대 이상이 전체의 77% 이상을 차지하고

3) 분석자료의 무응답치(missing data)는 정규성 및 분석결과의 오류를 야기하므로 분석 전 각 척도마다 무응답이 많은 사례를 제거(listwise deletion 방법)하였고, 그 외 척도별 무응답 사례는 최대우도 측정법에 의한 EM(expectation-maximization) 방법으로 대체하였다. 또한 가설모형이 자료에 잘 부합하는지 평가하기 위해 모델의 전반적인 적합도를 평가하는 지수인 절대적합지수(Chi-Square 통계량 (X^2))와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등의 적합도 지수를 사용하였고, 또한 증분산적합지수로는 NFI(normed fit index) TLI(tur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등의 지수를 사용하였다.

4) Sobel Test는 간접(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는 방법(Sobel, 1982)으로 설문응답에 결측치가 있을 경우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은 부트스트래핑(Bootstrap) 방법을 사용하지만 이 방법은 프로그램 상 결측값이 없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obel test를 사용하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quantpsy.org/sobel/sobel.htm> 참조.

5) 설문에 응답한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가는 네덜, 말레이시아, 몽골, 베트남, 브라질, 우즈베키스탄, 일본, 중국,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등이고, 베트남과 중국출신이 64.1%이었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는 18세 미만으로 자녀수는 1명이 47.7%로 가장 많았고, 2명은 44.6%이였으며, 가구소득은 50만원을 간격으로 15%에서 20%의 비율을 보였다. 거주기간은 5-10년 미만이 47.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년 미만 35.3%, 10년 이상 17.4%이었다. 거주특성은 도시 65.2%, 농촌 34.8% 이었다.

<표 2> 결혼이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N=195)

		빈도	%			빈도	%
연령	20대	62	32.5	자녀수	1명	93	47.7
	30대	95	49.7		2명	87	44.6
	40대 이상	34	17.8		3명 이상	15	7.7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0	21.3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29	15.8
	고등학교 졸업	94	50.0		101-150만원	36	19.7
	대학교 졸업 이상	54	28.7		151-200만원	43	23.5
201-250만원		36	19.7				
종교유무	없음	94	51.6		251-300만원	26	14.2
	있음	88	48.4	301만원 이상	13	7.1	
직업유무	없음	151	77.4	거주기간	5년 미만	65	35.3
	있음	44	22.6		5-10년 미만	87	47.3
배우자 연령	30대 이하 40-44세 45-49세 50대 이상	43	22.6		10년 이상	32	17.4
		72	37.9	거주특성	도시	118	65.2
		52	27.4		농촌	63	34.8
		23	12.1				

2) 주요 측정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및 상관관계

조사자료의 분석을 위한 적합성 검토를 위해 변수별 왜도와 첨도,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변수별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 지수는 범위 내에서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분석에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⁶⁾

주요 측정변수들의 기술통계치 중 이동학대를 살펴보면 최소값 0, 최대값 88점 기준에서 평균 19.23점이었다. 하위요인별로 신체학대는 평균 6.21점(최대값 28점), 정서학대는 평균 9.75(최대값 44점),

6) 요인구조의 분석을 위해서는 왜도와 첨도의 지수가 분석에 적합한 수준을 유지하여야 하는데, 표준 왜도지수는 절대값이 3.0보다 크면 왜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표준첨도지수는 절대값이 10보다 크면 분포에 문제 있는 것으로 보며, 그 값이 20보다 크면 분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문수백, 2010: 382; Kline, 1998).

방임 평균 2.37점(최대값 16점)이었고, 학대별 비율은 신체학대가 정서학대 및 방임보다 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아동학대 평가척도는 '0'점을 제외하고, 1점 이상부터 점수가 높아질수록 학대 행위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195명 중 무응답 17명을 제외한 96.6%가 1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5.1%가 척도의 중앙값인 44점 이상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라는 민감한 주제에 대한 응답자의 자기보고에 의한 결과라는 점에서 과소추정의 여지가 있고, 학대는 정도에 상관없이 아동에게 심각한 영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다문화가정내의 아동학대 발생 자체는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표 3〉 주요 측정변수에 대한 기술통계치(N=195)

	척도속성	평균(SD)	왜도	첨도
아동학대		19.23(15.17)	1.38	3.06
	신체(7문항) 5점 척도	6.21(5.23)	1.05	1.28
	정서(11문항) 5점 척도	9.75(8.01)	1.07	1.90
	방임(4문항) 5점 척도	2.37(3.33)	1.70	2.99
양육스트레스	5점 척도	6.23(3.28)	.197	-.047
문화적응		29.60(11.46)	-.35	.47
스트레스	적응 5점 척도	12.46(5.50)	-.23	-.05
	차별 5점 척도	10.61(4.52)	-.15	.06
	향수 5점 척도	6.38(2.71)	-.18	.21
사회적지지		44.46(7.48)	-.06	.35
	친구 5점 척도	12.91(2.63)	.27	.55
	가족 5점 척도	16.41(3.06)	-.29	-.12
	지역 5점 척도	15.25(3.28)	-.16	.78

또한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다중공선성을 파악할 수 있는데, 다중공선성을 확인하는 기준은 매우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상관관계 계수가 0.7 이상인 경우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수 있다(Hamilton, 1992). 본 연구에서는 0.7 이상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수들이 없었고, 분산팽창지수(VIF) 값도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송지준, 2008). 주요 변수간 상관관계는 모든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4〉 주요변수 상관관계(N=195)

	거주기간	가구소득	본인이동학대	양육스트레스	문화적응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자녀수	.406**	.012	.007	-.143	-.141	.035
거주기간	1	-.062	.045	-.098	-.057	-.012
가구소득		1	-.099	.013	-.018	.098
아동학대			1	.456**	.359**	-.257**
양육스트레스				1	.590**	-.173*
문화적응스트레스					1	-.267**
사회적지지						1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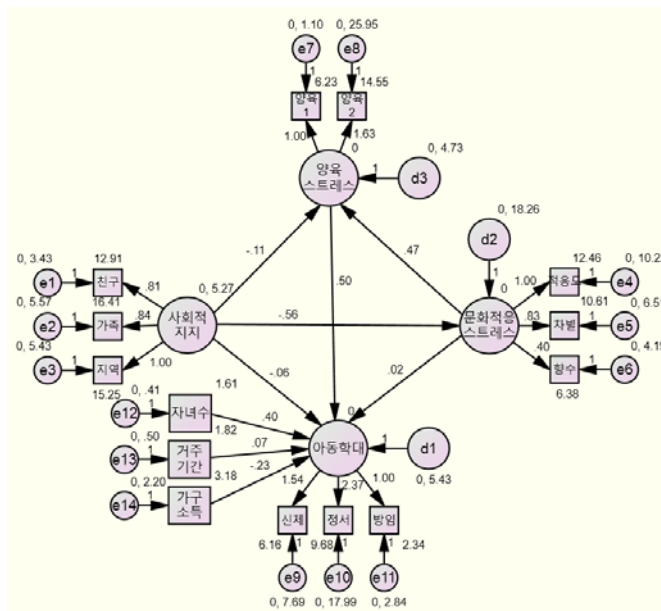
3) 연구모형 분석

(1) 측정모형 분석

구조모형 분석에서 변수간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전에 연구모형에 포함된 개념들이 적절하게 측정되고 있는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모형에 포함된 잠재변수로 사용한 양육스트레스, 문화적응스트레스, 사회적지지의 각 지표들이 이론적 개념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측정모형을 분석하기에 앞서 연구모형에 투입한 양육스트레스 12문항은 탐색적 요인분석 후 2개 관측변수로 분류되었으며, 이를 적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동학대 변수를 제외하고 확인적요인분석을 한 결과 표준화계수가 .630~.935로 모두 유의하였으며, $\chi^2=33.587(df=17)$, $P=.009$, $TLI=.949$, $CFI=.969$, $RMSEA=.071$, $NFI=.941$ 로 χ^2 를 제외하고 연구의 측정모형이 자료를 잘 설명하도록 적합하게 구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2) 구조모형분석 및 가설검증

결혼이주여성의 아동학대 위험성에 대한 영향요인으로서 양육스트레스, 문화적응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구조모형 분석결과는 <그림 2>, <표 5>와 같다.



$\chi^2=128.520(df=71)$, $TLI=.910$, $CFI=.939$, $RMSEA=.065$, $NFI=.878$

<그림 2> 구조모형 분석결과

먼저 가설 1의 검증을 위해 양육스트레스, 문화적응스트레스, 사회적지지가 아동학대에 직접효과를 갖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양육스트레스만 아동학대에 직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B=.497, p<.001$). 이와 함께 사회적지지는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직접효과를 갖는데($B=-.559, p<.01$), 사회적지지가 증가할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는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양육스트레스에 직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B=.475, p<.001$).

가설 2의 검증을 위해 사회적지지가 문화적응스트레스를 매개로 아동학대에 간접효과를 갖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그러나, 가설 2는 사회적지지와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매개변수인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아동학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갖지 않아서 간접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지지가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아동학대에 대한 간접효과를 알아본 가설3은 양육스트레스와 아동학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사회적지지와 매개변수인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간접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4는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아동학대에 간접효과를 갖는 것에 대한 검증이다.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통해 가설 4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아동학대에 간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간접효과에 대한 경로계수는 .236이었다. 이러한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결과는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아동학대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Sobel 통계량 3.648로 99.0% 신뢰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마지막 가설 5는 사회적지지와 양육스트레스간의 관계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사회적지지는 양육스트레스에 직접효과를 갖지 않았으나, 문화적응스트레스를 매개로 간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효과의 경로계수는 -.266이었고,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사회적지지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Sobel 통계량 -2.833로 99% 신뢰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5> 연구모형의 모수추정치

	경로	Estimate		S.E.	C.R.
		B	β		
문화적응스트레스	← 사회적지지	-.559	-.288	.186	-3.004**
양육스트레스	← 문화적응스트레스	.475	.683	.056	8.548***
양육스트레스	← 사회적지지	-.115	-.085	.102	-1.131
아동학대	← 양육스트레스	.497	.534	.123	4.045***
아동학대	← 문화적응스트레스	.019	.030	.079	.242
아동학대	← 사회적지지	-.057	-.045	.102	-.553
아동학대	← 자녀수	.397	.088	.289	1.372
아동학대	← 거주기간(년)	.071	.080	.272	.262
아동학대	← 가구소득	-.233	-.120	.129	1.180

* $p<.05$, ** $p<.01$, *** $p<.001$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결혼이주여성의 아동학대 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양육스트레스이고,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이 문화적응의 어려움을 경험할수록 아동학대 발생위험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요인들은 사회적지지는라는 보호요인에 의해 상쇄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양육스트레스가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임을 가정할 때, 사회적지지는 문화적응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변수였다. 결국 본 연구결과는 결혼이주여성에게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가 중요한 변수이고,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과 사회적지지 체계를 확대하는 것은 다문화가정의 아동학대를 예방하는데 있어 중요한 전략이 됨을 시사하고 있다고 하겠다.

<표 6> 연구모형의 매개효과 검증

경로	매개효과	
	간접효과	Sobel Test (Z-value)
문화적응스트레스 → 양육스트레스 → 아동학대	.236	3.648***
사회적지지 → 문화적응스트레스 → 양육스트레스	-.266	-2.833**

p<.01, *p<.001

5. 결론

1) 주요결과에 대한 논의

본 연구결과에서 다문화가정내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아동학대는 96.6%가 학대의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대 유형별로는 신체학대가 정서학대 및 방임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문화 가정내 아동학대 개입을 위한 실천적 함의를 찾기 위해서 수행한 주요요인에 대한 가설모형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적지지, 문화적응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는 아동학대에 직접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본 가설1은 양육스트레스만이 직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학대의 주요요인으로 양육스트레스를 밝히고 있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동일한 결과이고,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의 간접효과를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이기도 하다.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아동학대의 관계에 대해서는 기존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부분으로 본 연구결과는 다문화가정내 결혼이주여성에 의한 아동학대가 문화적응으로 인해 직접영향을 받기보다는 아동학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한다. 그러나 사회적지지는 Lee(2009) 등을 통해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직접효과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박명숙(2008)의 연구에서는 사회적지지와 아동학대와의 관련성에 대해 다른 요인을 매개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는데, 이는 한국이라는 거주 및 문화특성 속에 사회적지지가 아동학대 예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원이라기보다는 결혼이주여성의 적응 및 삶의 질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요인임을 예측해볼 수 있겠다.

다음으로 사회적지지와 아동학대의 관계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가설 2와 사회적지지와 아동학대의 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가설3은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2의 경우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아동학대와 상관관계가 없었고, 가설 3은 사회적지지와 양육스트레스의 상관관계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Heller 외(1999)와 Kotch 외(1997)는 사회적지지가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거나 완충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지지마감이 아동양육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지지마감이 주로 문화적응과 관련되어 형성되어 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사회적지지는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인 효과를 갖기보다 다른 변수를 매개로 한 간접효과를 가정해볼 수 있다.

또한, 가설 4는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아동학대의 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분석결과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아동학대에 직접효과를 미치지 보다는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남으로써,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이 양육 및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결과는 앞서 제시한 것처럼 기존 선행연구에서 입증되지 못한 새로운 연구결과로써,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은 아동의 양육과정에서 양육스트레스를 가중시켜 학대를 유발하게 하는 외부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와 관련하여 양옥경 외(2007)의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복지 및 사회적서비스의 상관관계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경험할수록 복지 및 사회적서비스 이용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에게는 아동학대 발생 위험성을 예측할 수 있는 척도이며, 따라서, 문화적응에 초점을 둔 학대예방프로그램의 개발과 정책의 필요성은 본 연구가 갖는 실천적 함의라고 하겠다.

마지막 가설 5는 사회적지지와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분석결과 사회적지지는 양육스트레스에 직접효과를 미치지 않고, 문화적응스트레스를 매개로 간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설 3의 연구결과를 통해 고려된 사회적지지의 간접효과를 확인한 것으로, 결혼이주여성에게 있어서 사회적지지는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감소하고, 이를 통해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킴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가정의 공통적인 특성 중 하나는 이웃이나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있고, 이로 인해 필요한 자원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몇몇 연구들을 통해 입증된 사실이다(박명숙, 2008). 이와 관련하여 최나야 외(2009)는 사회적지지가 결혼이주여성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자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출신국가와 한국사이의 가족양래를 돕는 방법, 출산과 초기 양육지원 서비스, 정보 공유를 통한 다문화가정 간의 연계, 다문화가정의 남편을 비롯한 다른 가족원들에 대한 교육과 상담프로그램 등의 활용을 제안하고 있다. 결국, 사회적지지는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며, 이는 개인의 삶 뿐 만이 아니라 건강한 양육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자원이 됨을 알 수 있다.

2)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함의와 제한점

본 연구의 결과는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적응을 지원함에 있어서 문화적응과 사회적지지망 형성에 초점을 둔 사회서비스의 도입을 제한한다. 현재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결혼과정에서의 인권보호, 한국어 교육을 비롯한 가족관계형성, 자녀양육지원 등이 주요한 내용이다. 특히, 가족관계형성은 가정폭력 등에 대한 위기개입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어 본 연구결과에서 확인된 문화적응과 사회적지지망을 형성하는 데 있어 그 역할 기능은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문화적응과 사회적지지망 형성이 안정적인 한국생활과 자녀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라고 할 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주요사업 및 센터의 기본사업의 변화와 확대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문화적응과 관계망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현재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업과 여성가족부가 담당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결혼이주여성의 아동학대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전략을 위해 일원화된 체계와 접근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실천현장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및 사회적지지망 구축과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실질적 교육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특히,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에는 문화적응 및 사회적지지망 구축에 대한 내용과 함께 학대의 주요요인으로 제기되는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전략으로 계획되어야 할 것이고, 한국의 문화적 특성에 기반한 아동양육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제공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정책 및 법률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다문화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들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대부분의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방적 전달형태의 강의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다문화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교육자와 피교육자가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교육방식이 모색될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면, 미국의 아동학대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들 교육에서 사용하는 “Simulation Room”을 통한 실천적 기술향상에 초점을 둔 교육방식 등은 우리에게 많은 실천적 지침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화적 능력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주여성들에 대한 전문교육을 통해 장기적으로 이들을 서비스의 수혜자에서 공급자로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문화적 민감성(Cultural Sensitivity)이 확보된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과 함께 사회통합의 관점에서도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와 함께, 학대 및 방임아동들의 권리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조직화하여 이들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을 위한 서비스 및 법적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미국의 CASA(Court Appointed Special Advocates)의 사례도 우리에게 중요한 지침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대상자에 있어서 국내에 거주하는 전국의 결혼이주여성을 표집하였으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지역복지관을 이용하는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선정함으로써 전체 결혼이

주여성으로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센터 및 복지관 이용자들은 복지 및 사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대상들로서,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함으로 인해 그 외의 집단들과 요인별 지표에서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또한 표집과정에서 설문참여에 희망하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표본이 균등하게 배분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더욱이 국가별 출신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간 문화적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에 대한 특성은 장애유무와 연령, 자녀수만 확인하였을 뿐, 심리정서적 특징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의 아동학대,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아동학대에 대한 접근이 전무한 한국적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주요 변인들을 검증해내고, 이를 통해 학문적, 실천적 관심을 유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된다.

참고문헌

- 고성혜, 1994,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8(2): 21-37.
- 공계순·박현선·오승환·이상균·이현주, 2005, 『아동복지론』, 파주: 학지사.
- 곽금주·유제민·김정미, 2007, “빈곤 아동에 대한 보호요인과 위험요인 탐색: 만 3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0: 1-19.
- 김경호, 2006, “비행청소년의 신체적 아동학대 경험과 폭력행동에 관한 사례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4(1): 23-37.
- 김기현·강희경, 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5): 141-150.
- 김동춘, 1997, “부모의 스트레스와 아동학대”, 『상담과 선교』, 5(1):30-59.
- 김미령, 2005, “사회적지지 개념과 효과에 관한 이론 및 방법론적 고찰”, 『임상사회사업연구』, 2(1): 99-121.
- 김미예·박동영, 2009,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우울 및 언어적 학대”, 『아동간호학회지』, 15(4): 375-382.
- 김영주·김희경·이현주, 2008, 『여성결혼이민자의 생애주기별 건강실태 및 건강증진 방안 정책 제언 연구』,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보고서, 1-128.
- 김오남, 2006a, “여성 결혼이민자의 부부갈등 및 학대에 관한 연구: 사회문화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8: 33-76.
- _____, 2006b,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지현·오진아·윤채민·이자형, 2009,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양육경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을 중심으로”, 『부모·자녀건강학회지』, 12(1): 46-60.
- 김희경, 2010, “다문화가정 여성결혼이민자의 스트레스 유형분석”, 『여성연구』, 78(1): 119-158.
- 나은숙·정익중, 2007, “아동학대 유형별 우울성향, 자기효능감, 학업성취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8(4): 35-49.
- 문수백, 2010, 『구조방정식 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 박명숙, 2008, “한국 이민가정의 사회적지지망과 아동학대 발생위험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25(1): 127-151.

- 박명숙·강희경, 2009, “미국 이민 여성의 심리적 복지와 관련 변인”,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25(1): 79-93.
- 박영아, 2009, “포천시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 방안에 관한 연구”, 『인문학 연구』, 5:131-151.
- 보건복지부,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정책방안』.
- _____, 2011, 『아동학대 실태조사』,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2, 『2011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송지준, 2008, 『논문작성에 필요한 SPSS/AMOS 통계분석』, 서울: 학지사.
- 신선희·우수경, 2013,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개인변인과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유아의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33(1): 215-236.
- 양옥경·김연수·이방현, 2007, “서울거주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사회적 지원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도시연구』, 8(2): 229-251.
- 여중철, 2010, “다문화가족의 형성과 문화적 적응”, 『민족문화논총』, 44: 351-388.
- 여진주, 2008, “아동학대 발생요인에 대한 생태학적 분석: 경상북도 동부권 아동을 대상으로”, 『보건사회연구』, 28(1): 3-26.
- _____, 2010, “빈곤과 부부불화가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 『한국아동복지학』, 32: 99-127.
- 유은주, 2011, “결혼이주여성의 이주경험을 통해 본 다문화정책: 당사자의 관점을 중심으로”, 한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봉주·김세원, 2005, “아동학대와 방임의 사회구조적 요인: 빈곤과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아동권리연구』, 9(3): 347-373.
- 이선미·이경아, 2010,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7(3): 71-105.
- 이승중, 1996, “문화이입과정 스트레스와 유학생의 신념체계 및 사회적지지와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분·김나예, 2013,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대경험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39: 151-180.
- 이영실·조명희·홍성희, 2012,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4): 171-194.
- 이재연·한지숙, 2003, “아동과 부모, 가족환경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 실태 연구”, 『한국아동학회』, 24(2): 63-78.
- 이지영, 2012,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부모스트레스가 자녀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족기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7(2): 105-125.
- 이현기, 2005, “아동학대 유형별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23: 77-108.
- 임안나, 2005, “한국 남성과 결혼한 필리핀 여성의 가족관계와 초국가적 연방”,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지향·이홍표, 2010,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및 우울의 조절효과 분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7(1): 49-70.
- 장화정, 1998, “아동학대 평가척도 개발”,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전경숙·송민경, 2011, “다문화가정 자녀의 출신국적 배경에 따른 한국생활 적응의 차이”, 『청소년학연구』, 18(11): 305-330.

- 조한숙, 2010, “다문화 가정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서산, 태안지역의 농촌노인과 외국인며느리의 문화적응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2, 『다문화가족 내 피해아동의 내재화문제 결정요인』, 서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진혜민, 2013, “청소년 자살생각에 관한 메타경로분석: 스트레스과정모델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나야·우현경·정현심·박혜준·이순형, 2009, “영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2): 255-268.
- 최명선·곽민정, 2008, “한국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140-141.
- 최현미·이혜경·신은주·최승희·김연희, 2008, 『다문화 가족복지론』, 과주: 양서원.
- 한건수, 2006, “농촌지역 결혼 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39-1: 195-243.
- 한상영, 2011, “다문화가정 여성의 자녀 양육경험”,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홍기혜, 2000, “중국 조선족 여성과 한국 남성간의 결혼을 통해 본 이주의 성별 정치학”,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bidin, R. R., 1990, *Parenting Stress Index*. Charlottesville: Pediatric Psychology Press.
- Affifi, T. O., 2007, “Child abuse and adolescent parenting: Developing a theoretical model from an ecological perspective”, *Journal of Aggression Maltreatment and Trauma*, 14(3): 89-105.
- Annerback, E-M., Sahlqvist, L., Svedin, C. G., Wingren., G., and Gustafsson, P. A., 2012, “Child physical abuse and concurrence of other types child abuse in Sweden-Associations with health and risk behaviors”, *Child Abuse and Neglect*, 36:585-595.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83-96.
-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1): 5-68.
- Budd, K. S., Holdsworth, M. J. A., and HoganBrien, K. D., 2006, “Antecedents and concomitants of parenting stress in adolescent mothers in foster care”, *Child Abuse and Neglect*, 30:557-574.
- Buunk, B. P., and Hoorens, B., 1992, “Social support and stress: The role of social comparison and social-exchange processes”,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1: 445-457.
- Cohen, N., Tran, T., and Rhee, S., 2007, *Multicultural Approaches in Caring for Children, Youth and Their Families*, Boston: Pearson Education Inc.
- Cohen, S., and Syme, S. L., 1985, “Issues I the study and application of social support”, 3-22, in *Social support and health*, edited by Cohen, S., and Syme, S. L., Orlando, FL: Academic Press.
- Crnicek, K. A., and Greenberg, M. T., 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628-1637.
- Crouch, J. L., and Behl, L. E., 2001, “Relationships among parental beliefs in corporal punishment, reported stress, and physical child abuse potential”, *Child Abuse and Neglect*, 25: 413-419.
- Fontes, L., 2005, *Child Abuse and Culture: Working with Diverse Families*, NY: Guilford Press.
- Gordon, M. M., 1964, *Assimilation in American Life*, NY: Oxford University Press.
- Guterman, N. B., 2009, “Parental perceptions of neighborhood processes, stress, personal control, and

- risk for physical child abuse and neglect”, *Child Abuse and Neglect*, 33: 897-906.
- Hamilton, L. C., 1992, *Regression with Graphics: A Second Course In Applied Statistics*, Pacific Grove, CA: Duxbury Press.
- Haskett, M. E., Smith Scott, S., Willoughby, M., Ahern, L., and Nears, K., 2006, “The parent opinion questionnaire and child vignettes for use with abusive parents: Assessment of psychometric properties”, *Journal of Family Violence*, 21(2): 137-151.
- Heller, S. S., Larrieu, J. A., D’Imperio, R., and Boris, N. W., 1999, “Research on resilience to child maltreatment: empirical considerations”, *Child Abuse and Neglect*, 23(4): 321-338.
- Jonzon, E., and Lindblad, F., 2006, “Risk factors and protective factors in relation to subjective health among adult female victims of child sexual abuse”, *Child Abuse and Neglect*, 30:127-143.
- Kline, R. B., 1998,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Y: Guilford.
- Kotch, J. B., Browne, D. C., Ringwalt, C. L., Dufort, V., Ruina, E., Stewart, P. W., and Jung, J., 1997, “Stress, social support, and substantiated maltreatment in the second and third years of life”, *Child Abuse and Neglect*, 19(9): 1115-1130.
- Kwok, S. Y. C. L., Chai, W., and He, X., 2013, “Child abuse and suicidal ideation among adolescents in China”, *Child Abuse and Neglect*, <http://dx.doi.org/10.1016/j.chiabu.2013.06.2006>.
- Lee, Yookyong., 2009, “Early motherhood and harsh parenting: The role of human, social and cultural capital”, *Child Abuse and Neglect*, 33: 625-637.
- Maretzki, T. W., 1977, “Intercultural marriage: An introduction”, 1-11, in *Adjustment in Intercultural Marriage*, edited by Tseng, W., McDermott, J., and Maretzki, Jr. T. W.,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Department of Psychiatry.
- McCubbin, H. I., Patterson, J., and Glynn, T., 1996, “Social Support Index(SSI)”, 357-389, in *Family Assessment : Resiliency, Coping and Adaptation. Inventories for Research and Practice*, edited by McCubbin, H. I., Thompson, A. I., and McCubbin, M. A.,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Milner, J. S., 1993,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and physical child abuse”, *Clinical Psychology Review*, 13: 275-294.
- Moon, S., and Deweaver, K., 2005, “An empirical test of the multicultural/multimodal/multisystems (MULTI-CMS) approach for Korean immigrant families”, *Journal of Social Work Research and Evaluation*, 6(1): 57-74.
- Morisset, C. E., 1993, *Language and Emotional Milestones on the Road to Readiness*, Arling, VA : Zero to Three National Center for Clinical Infant Programs.
- Park, M., 2001, “The factors of child physical abuse in Korean immigrant families”, *Child Abuse and Neglect*, 25: 945-958.
- Pearlin, L. I., Lieberman, M. A., Menaghan, E. G., and Mullan, J. T., 1981, “The stress proc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2: 337-356.
- Pereira, J., Vickers, K., Atkinson, L., Gonzalez, A., Wekerle, C., and Levitan, R., 2012, “Parenting stress mediates between material maltreatment history and maternal sensitivity in a community sample”, *Child Abuse and Neglect*, 36: 433-437.
- Proulx, M. C., Helmes, H., and Payne, C. C., 2004, “Wives domain-specific ‘marriage work’ with

- friends and spouses: Links to marital quality”, *Family Relations*, 53: 393-404.
- Putnam-Hornstein, E., Needell, B., and Rhodes, A. E., 2013, “Understanding risk and protective factors for child maltreatment: the value of integrated, population-based data”, *Child Abuse and Neglect*, 37: 116-119.
- Rodriguez, C. M., and Green, A. J., 1997, “Parenting stress and anger expression as predictors of child abuse potential”, *Child Abuse and Neglect*, 21: 367-377.
- Sandhu, S. D., and Asrabadi, R. B., 1994, “Development of an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 : Preliminary findings”, *Psychological Report*, 75(1): 435-448.
- Silver, E. J., Heneghan, A. M., Bauman, L. J., and Stein, R. E. K., 2006, “The relationship of depressive symptoms to parenting competence and social support in inner-city mothers of young children”, *Maternal and Child Health Journal*, 10(1): 105-112.
- Smokowski, P., Reynolds, A., and Bezrucko, N., 1999, “Resilience and protective factors in adolescence: An autobiographical perspective from disadvantaged youth”,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7(4): 425-448.
- Sobel, M. E., 1982, “Asymptotic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s models”, 290-312, In *Sociological methodology 1982*, edited by Leinhardt, S., San Francisco: Jossey-Bass.
- Thompson, R. A., 1995, *Preventing Child Maltreatment Through Social Support: A Critical Analysi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Vranceanu, A., Hobfoll, S. E., and Johnson, R. J., 2007, “Child multi-type maltreatment and associated depression and PTSD symptoms: The role of social support and stress, *Child Abuse and Neglect*, 31(1): 71-84.
- Wareham, J., and Dembo, R., 2007, “A longitudinal study of psychological functioning among juvenile offenders: A latent growth model analysi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4(2): 259-273.
- Wolfe, D. A., 1987, *Child Abuse: Implications for Child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Thousand Oaks, CA: Sage.
- Xu, X., Tung, Y., and Dunaway, R. G., 2000, “Cultural, human, and social capital as determinants of corporal punishment”,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5(6): 603-630.

Social Support, Acculturative Stress, and Parenting Stress as Factors Influencing Child Abuse Among Married Immigrant Women in Korea

Park, Myungsook

(Sangji University)

Lee, Jaekyoung

(Chung-Ang University)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plor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of social support, acculturative stress and parenting stress which influenced child abuse among married immigrant women in Korea. For study 195 married immigrant women participated and structured questionnaire was used. This study identified that the variable of parenting stress directly affected child abuse and the variable of acculturation stress indirectly affected child abuse with a variable of parenting stress as a mediator variable. In addition, the variable of social support indirectly affected parenting stress with a variable of acculturation stress as a mediator variable. Also, the variable of social support did not directly affect child abuse, but it was verified as a protective factor to reduce the risk of child abuse. This study suggested the social interventions to prevent child abuse among multi-cultural families based on the study results.

Key words: married immigrant women, child abuse, social support, acculturative stress, parenting stress

[논문 접수일 : 14. 03. 06, 심사일 : 14. 03. 25, 게재 확정일 : 14. 05. 04]

허용창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선임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BK21플러스 사업팀 박사후연구원. 최근 논문으로는 “A Comparative Study of Housing in Korea and Singapore”(University of York, unpublished PhD thesis, 2012), “싱가포르의 주택정책과 복지국가: 고층동 정부까지를 중심으로”(『사회복지정책』, 40(3), 2013) 등이 있음. 주요 관심분야는 복지국가 발달사, 주택정책 비교연구, 사회서비스와 복지국가 등임.
E-mail: heoyc1@gmail.com

현경자

우리사회복지연구소에서 연구와 교육활동을 하고 있음. 최근의 주요논문으로 “중도장애, 이혼과 같은 생애위기 경험자의 자기해석 복잡성과 심리적 안녕: 관점의 다각화, 자기수용, 자기조절의 매개효과”(『한국사회복지학』, 62(4), 2010), “경제적 압박과 저소득층 부부의 친밀성: 남편과 부인의 관점의 다각화와 갈등반응행동의 기제 연구”(『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3), 2012, 공저), “여성결혼이민자의 두문화정체성과 결혼의 안녕: 관점의 다각화에 기반 한 자기긍정성의 매개효과”(『한국사회복지학』, 64(2), 2012) 등이 있음. 주요관심분야는 사회심리를 응용한 임상실천치식 개발, 다문화가족복지, 사회문화적 소수자의 역량강화임.
E-mail: swwhyun22@hanmail.net

남일성

한림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 연구교수. 주요 논문으로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cross-cultural examination of the Texas Revised Inventory of Grief”(Families in Society: The Journal of Contemporary Social Services, 93(1), 65-73.), “Is student debt jeopardizing the long-term financial health of U.S. households?”(Review of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95(5), 405-424.) 등이 있음. 주요 관심분야는 정신건강, 건강불평등, 사별, 복잡성 비애감, 경제적 곤란 등임.
E-mail: ilsungn@hallym.ac.kr

박명숙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근의 주요논문으로 “장애여성들의 결혼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결혼불안정성을 중심으로”(『한국장애인복지학』, 20, 2013), “형제자매들에게 발생한 아동학대가 비행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청소년학연구』, 18(4), 2011), “학대피해아동 형제자매들의 스트레스에 대한 보호요인으로써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피해자학연구』, 19(1), 2011) 등이 있음. 주요 관심분야는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다문화 등임.
E-mail: mspark@sangji.ac.kr

이재경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최근의 주요논문과 저서로 “주류광고가 비음주경험 청소년의 음주의도에 미치는 영향”(『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0(4), 2012), “문제음주 영향요인에 대한 국내 연구경향 메타분석”(『한국알코올과학회지』, 14(2), 2013), 『중독에 대한 100가지 오해와 진실』, (중독포럼, 2013, 공저) 등이 있음. 주요관심분야는 정신건강(알코올 및 중독), 아동·청소년복지임.
E-mail: good-man0424@daum.net

최옥채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근의 논문으로 “김만두 비평: 그의 실천경험과 연구문헌 중심으로”(『한국사회복지학』, 65(4)), 저술로는 『얕은 욕망과 깊은 열등감: 범죄에 관한 인문학적 이해』, (양서원, 2012) 등이 있음. 현재 “한국 사회복지실천 정체성 비평”과 『한국 사회복지학 통설』을 준비하고 있음.
E-mail : okchai@jnu.ac.kr